



# ‘농심’ 계열서 독립 솔루션 기업으로

공공시장 집중 공략 ... 최근 미국 시장에도 진출



초창기 NDS는 농심데이터시스템 기술개발연구소라는 사명으로 설립됐다. 이후 한국오라클 및 소만사, EXE사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장기를 거치면서 2000년에 지금의 ‘엔디에스(NDS)’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다. 식품 브랜드로 굳어진 ‘농심’이라는 이름을 떼고 정보통신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명을 바꾼 것이다.

NDS는 농심 그룹 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시장을 공략 중이다. 지난 해에는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NDS는 올해 환경관리공단·문화관광부·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12개 프로젝트를 잇달아 따내며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각 그룹별로 그룹 내 시스템통합을 맡아 오다가 전문 IT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는 NDS 외에도 여럿이다. 대표적으로 삼성 SDS, LG CNS, SK C&C 등 이른바 ‘빅3’ 기업을 꼽을 수 있다. 이외 현대정보기술, 동부정보기술 등과 함께 NDS는 중견 기업에 속한다. ‘빅3’ 기업들이 자사 그룹의 IT 서비스를 도맡아가면서 규모를 늘린다면 이들 중견 기업들은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 외부 비즈니스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SI와 솔루션 개발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해 SI 업체들이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NDS도 최근 자체 개발한 내부통제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호조세를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발한 내부통제솔루션 ‘S3-ICS(에스큐브 ICS)’가 제품 출시 4개월 만에 성지건설·홍진HJC·동양물산 등 20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또 현재 계약 진행 중인 곳을 합치면 30개 업체가 넘는다.

이 같은 성과는 중견·중소 기업에 적합한 핵심 통제 기능만을 탑재한 점이 가격 대비 성능을 우선 시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한 것으로 NDS측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 저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업 현실에 맞게 통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정교하고 실질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에스큐브ICS는 중견·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통제 핵심업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외 내부통제 관련 국제 표준인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프레임워크와 국내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기업 성장에 따른 통제관리 조정, 중앙집중식 또는 분권형 등 혼합형 내부 통제업무를 지원하는 것 등도 빠질 수 없는 강점이다.

또한, 에스큐브는 간편성(Simple), 유용성(Smart), 신속성(Speedy)의 의미를 반영해 그룹웨어의 화면구성과 같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췄으며 업무 프로세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

지난 1993 설립된 엔디에스(www.nds.nongshim.co.kr, 대표 신재덕, 이하 NDS)는 농심 그룹의 계열사로 이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온 전산실을 모태로 10여 년간 국내외 정보 고도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시스템통합(SI)전문 기업이다. NDS는 농심 외에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SI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SI) 분야 외에도 IT컨설팅, 솔루션 개발·판매, IT 아웃소싱/ASP, 정보보호, NI, e-Business, 교육서비스 등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 구현 노력으로 검증받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 | 임일곤 기자(아이티타임스)

주요 워크플로우(Visual Workflow) 기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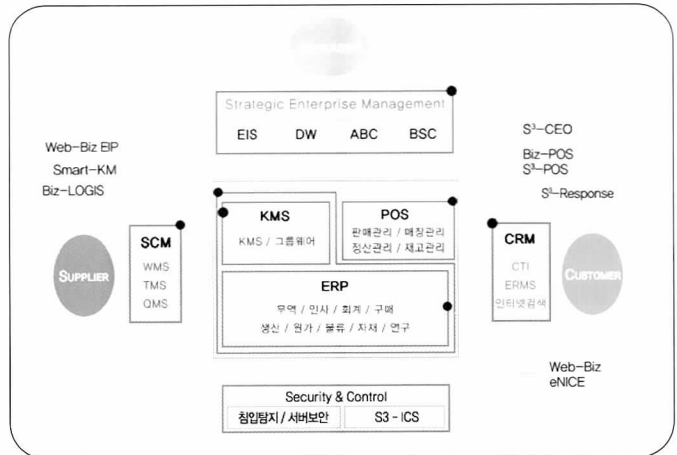
특히 기업의 성장에 따른 통제관리 결재 승인단계의 조정이나 추가 등 중견·중소기업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췄다. 아울러 통제업무를 재경이나 감사팀 등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중앙집중으로 평가하거나 일선부서에 분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혼합형 통제업무처리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 공공기관 대상 영업 강화

NDS는 최근 농심과 율촌화학에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용한 것을 준거사이트(레퍼런스)로 삼아 국내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특성상 NDS는 국내 회계법인과 협력을 통해 시장을 공동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회계제도 개혁법안(외감법, 공인회계사법, 증권거래법, 집단소송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생성, 보고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 구축 대상이 올해 국내상장기업 및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서 2007년부터는 국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형 솔루션인 내부통제솔루션 시장도 본격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회사가 솔루션 분야에 주목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이다. 현 신재덕 대표가 취임과 함께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신설하며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솔루션



개발과 함께 판매, 영업을 전담하는 솔루션사업부 조직도 갖췄다.

NDS는 솔루션 사업을 통해 미국을 필두로 한 해외시장 개척을 궁극의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 2월초 미국 켄스코에 SCM 솔루션을 수출한 사례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이자 성과다.

한편 '에스큐브 ICS' 외에도 현재 NDS가 보유한 기업용 솔루션은 웹비즈EIP, e-나이스, 비즈-포스, 비즈-로지스, 스마트-KM 에스큐브-레퍼런스, 에스큐브-CEO, 에스큐브-ICS 등 총 9개이다.

이 솔루션들은 농심 그룹 정보시스템 구축 및 대외 프로젝트 구축으로 도출한 베스트 프랙티스,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제품화 한 것. NDS는 각 제품별 'BM(Brand Manager)'을 두고 솔루션의 성능 개선 및 업종별, 기능별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K**